



겨울 친구들은 어디로 갔을까?





아침 해가 밝게 빛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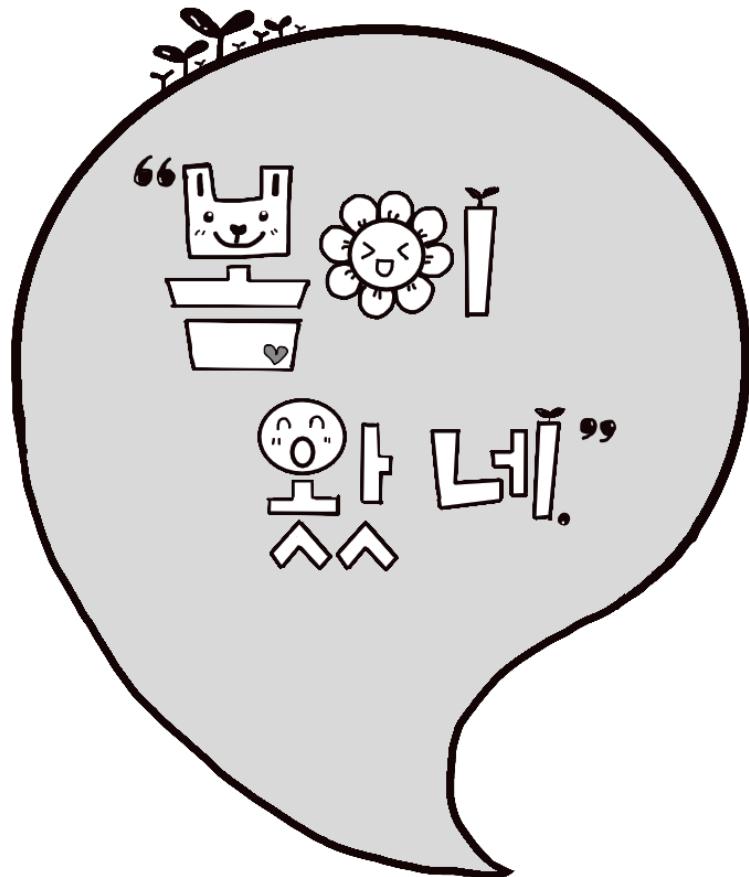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요.

우리는 나들이를 가요.



아지랑이가 아물아물 피어올라요.
새싹이 파릇파릇 돋아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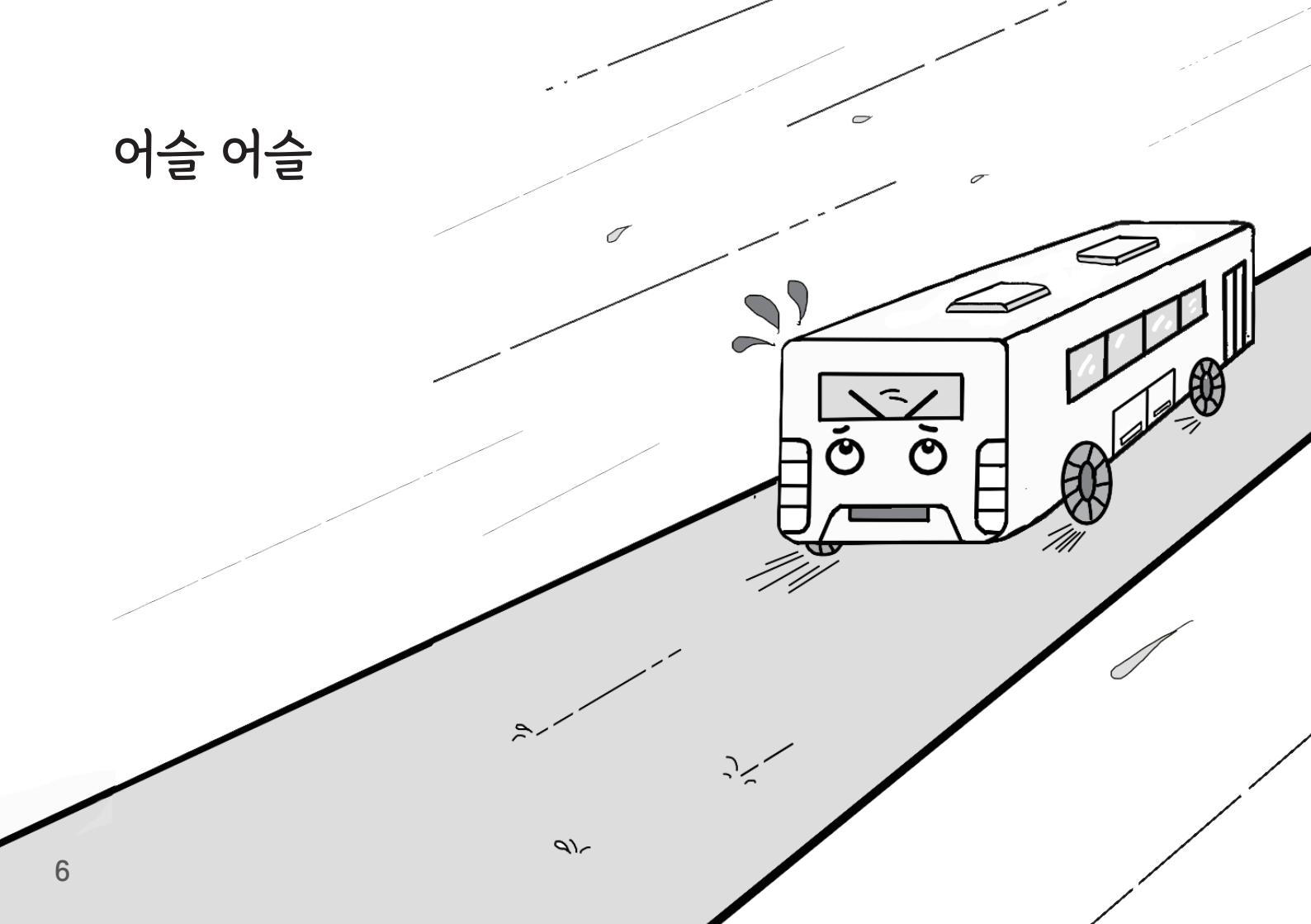
노오란 개나리가 환하게 인사해요.
하얀 나비가 나풀나풀 날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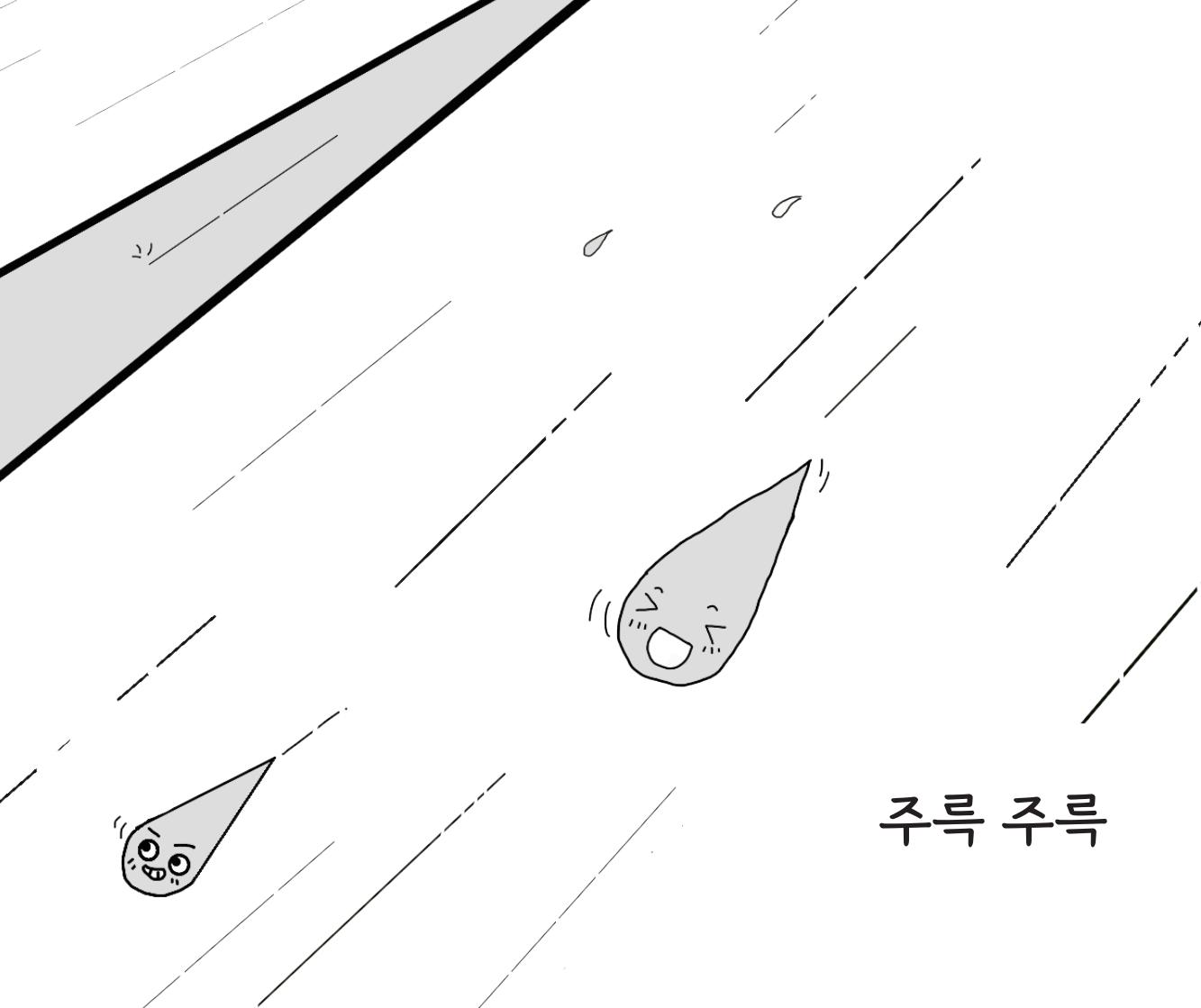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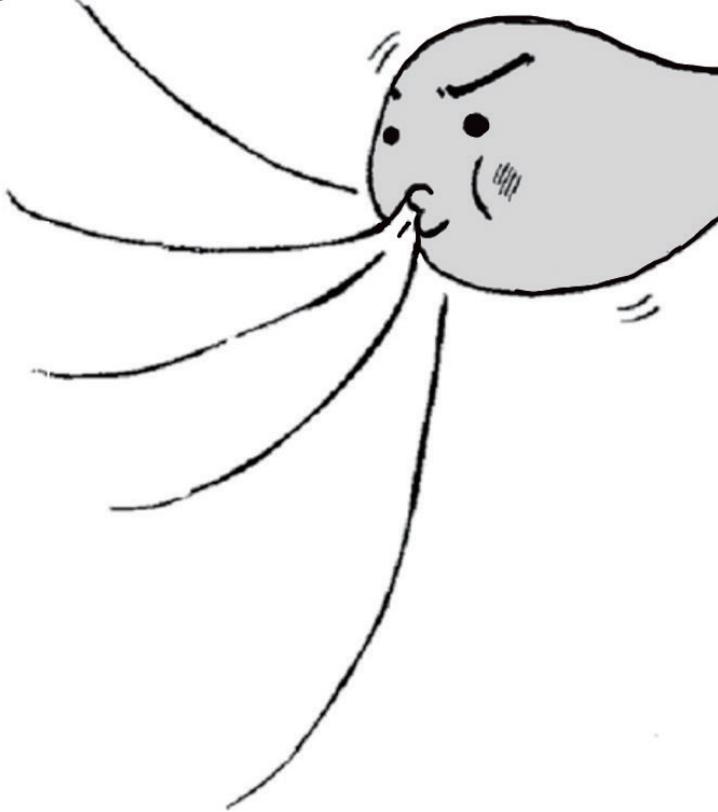
'봄이 왔다구?
어, 그럼 겨울 친구들은
어디로 갔을까?

어슬 어슬





주륵 주륵





어둑어둑 어둠이 내려와요.
차가운 바람이 불어요.
나무는 잎을 떨구고
겨울눈을 만들어요.





다람쥐는 도토리를 모아요.
토끼는 복슬복슬 하얀 새 옷을 입어요.
곰은 겨울잠을 자러 굴속으로 들어가요.
그 위에 하얀 눈이 수북수북 쌓여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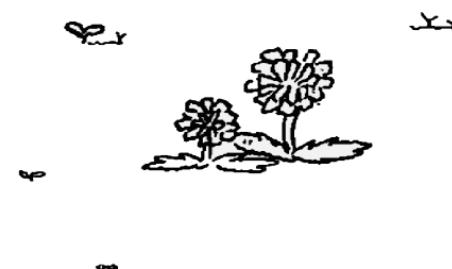
추운 겨울밤이 지나가고 있어요.
잠을 자는 친구들은
봄을 기다리나 봐요.







아침 해가 밝게 빛나요.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요.
우리 모두 봄나들이 가요.



인천읽기그림책③ <겨울 친구들은 어디로 갔을까?> 안내

▶ <겨울 친구들은 어디로 갔을까?>는 한글의 결을 살린 그림책입니다.

한글의 낱말은 아주 오랫동안 사물과 현상을 보고 느낀 것에 대한 생각과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겨울 친구들은 어디로 갔을까?>에서는 홀소리(모음) ㅏ, ㅓ, ㅗ, ㅜ의 느낌을 살리고자 했습니다.

▶ 홀소리의 결은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요?

홀소리의 생김새는 태양의 위치에 따라 만들어졌고, 태양의 밝기와 움직임에 따라 사람이 느끼는 감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ㅏ는 해가 지평선 위로 떠올랐을 때 ‘ㅣ’의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는 모양을 본떠서 만든 글자입니다. 해가 떠오르면 세상은 환하게 밝아지므로 ‘밝다’, ‘맑다’ 등의 뜻을 나타냅니다. 사람의 기분이 ‘좋다’, ‘가볍다’ 등의 뜻도 나타냅니다.

ㅓ는 하늘 위에 떠 있는 태양을 땅에서 보았을 때 ‘－’의 위쪽에 위치하고 있는 모양을 본떠 만든 글자입니다. 태양이 가장 밝은 상태이므로 ‘환하다’의 뜻이 있고, 해가 위로 솟아오르듯내면서 무언가가 떠오르는 느낌을 줍니다.

ㅗ는 해가 지평선 아래로 지기 전 ‘ㅣ’의 원쪽에 위치하고 있는 모양을 본떠서 만든 글자입니다. 해가 지평선 아래로 기울면 세상은 밝음에서 어둠으로 변하여 어두운 느낌을 줍니다. 저녁이 되면 집으로 돌아가거나 활동을 멈추는 것처럼 안으로 들어가는 느낌도 나타냅니다. 세상이 어두워지면 사람의 기분도 어두워지고, 쓸쓸하고 허전하다는 느낌을 줍니다.

ㅜ는 해가 지평선 아래로 완전히 사라져서 땅 아래쪽에 내려가고 있는 모양을 본떠서 만든 글자입니다. 빛이 없어 매우 어둡다는 뜻입니다. 지평선 아래로 쑥 들어가는 느낌, 사람의 기분 또한 무섭거나 우울하다는 느낌을 나타냅니다.

▶ <겨울 친구들은 어디로 갔을까?>에 나타난 모음의 결

이 책에서는 모음의 기본자 ㅓ, ㅗ, ㅣ를 1차로 결합시킨 ㅏ, ㅓ/ㅓ, ㅜ의 단모음을 기본으로 삼았습니다. 이 중에서 양성모음인 ㅏ, ㅓ는 봄의 느낌을, 음성모음인 ㅓ, ㅜ는 겨울의 느낌을 나타내는 데 주로 사용했습니다.

봄에는 ㅏ, ㅓ를 통해 무엇인가 떠오르는 시작의 느낌과 환하게 밝아지는 느낌을 담아 보았습니다. ㅏ, ㅓ의 소리결 느낌이 잘 드러나는 낱말들을 조합하여 밝은 햇살, 따뜻한 봄 날씨, 생명이 시작되는 새싹의 솟아오름을 표현하였고, 봄을 느끼려 나가는 나들이를 통해 ㅏ, ㅓ의 소리결을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겨울에는 음성 모음인 ㅓ, ㅜ를 사용하여 봄과 반대되는 겨울의 이미지들을 떠올리며 ㅓ, ㅜ의 소리결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겨울은 다른 생명을 준비하기 위해 나뭇잎을 떨구어내고, 스스로를 수축시키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봄에서 겨울로 바뀔 때 어슬어슬, 주룩주룩, 어둑어둑 등의 다양한 의태어를 활용하였습니다. 저학년 아동에게 친근한 동물들이 어떻게 겨울을 준비하는지를 보여주면서 겨울의 느낌과 ㅓ, ㅜ의 느낌을 연결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 <겨울 친구들은 어디로 갔을까?> 이야기 구성의 특징

‘봄’에서 ‘겨울’로 이어지는 시간의 간극을 자연스럽게 연결하기 위해 판타지 세계인 ‘꿈’을 징검다리로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서사적 장치는 물활론적이고 직관적인 사고에 익숙한 저학년의 발달단계를 고려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야기의 끝부분에서 꿈에서 깨어나 봄의 세계로 돌아옴으로써 홀소리 ㅏ, ㅓ, ㅗ, ㅜ의 느낌이 통합될 수 있도록 순환의 구조로 완결하여 이야기를 맷음으로써, 홀소리인 모음의 소리결이 이야기 전체를 통해 체화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겨울 친구들은 어디로 갔을까?>를 활용한 모음결 지도

<겨울 친구들은 어디로 갔을까?>을 활용한 지도방법으로, 먼저 ‘ㅏ’와 ‘ㅓ’의 대비되는 음소를 지도하고, 그 다음 ‘ㅗ’와 ‘ㅜ’의 대비되는 음소를 지도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ㅓ, ㅗ와 ㅓ, ㅜ인 단모음이 어떤 느낌으로 묶여서 봄과 겨울의 느낌을 내는지, 두 묶음의 음소가 어떻게 대비되어 봄과 겨울을 나타내는지 읽을 수 있도록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책을
만들어
주신 분들

자문위원장

이영규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

자문위원

유충열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

구자 인천광역시교육청

연구진

김태선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

서해주 인천광역시교육청

심의검토진

박은숙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
최혜봉 인천한누리학교

김대성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
차의진 부흥중학교

집필진

권미현 인천도담초등학교
남지현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이은숙 인천도림초등학교
조예리 인천조동초등학교
이진숙 인천한누리학교

삽화

신혜영 인천동수초등학교
봄토끼

다국어 번역

김사랑 인천한누리학교(러시아어)
뚜엣마이 인천한누리학교(베트남어)
이희연 인천남동고등학교(영어)

박디나라 인천한누리학교(영어)
장향화 인천한누리학교(중국어)

겨울 친구들은
어디로 갔을까?

